

##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아에 대한 은유연구: 장애학의 관점에서\*

강유진\*\*      연희정\*\*\*

A Metaphor Study for the with Children with Disabled Child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 from Disability Study  
Perspective

Kang, Yu Jin      Yeon, Hee Jong

본 연구는 장애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은유를 장애학의 관점을 통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 경남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1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 은유분석을 바탕으로 범주화 후 수치화하였다.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의 장애아에 대한 은유는 의료-한계 유형, 의료-다양성 유형, 사회-한계 유형, 사회-다양성 유형의 총 4가지로 범주화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양성과정에서 통합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찰과 통합교육의 실시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예비유아교사, 장애아, 은유분석, 장애학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 제 1저자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E-mail : kangyu8@hanmail.net)

\*\*\*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 플러스 연구원(E-mail : yeonhj92@hanmail.net)

## I. 서론

장애를 바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사람이 중심이 되기를, ‘다름’이 차별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왼쪽 눈이 의안인 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는데, 내가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동정어린 시선 때문에 위축되는 나를 느낀다.(Beminor, 2015)”라고 쓴 어느 시각 장애인의 글은 시민사회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를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사회 속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신 또는 타인이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해석 또한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삼호(2006)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관점이 주류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동안 비주류로 살아왔던 장애인을 그들이 이해하고 싶은 방향대로 이미지를 형성한 결과라고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주류 집단에 속하는 비장애인들의 해석에 따라 장애인을 도움과 원조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자립 가능한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허숙민, 박진희 그리고 김문수(2012)는 사회가 바라보는 장애인의 이미지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질병이나 손상 혹은 그에서 기인하는 활동에서 제한받으므로 상당 부분 장애인을 원조적 대상으로 전락시킨다고 하였다. 조한진(2011)도 우리 사회는 장애를 신체적 혹은 감각적 결함에서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이는 인간의 발달을 의학적인 혹은 단순 생물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생물적 환원주의 때문이라고 하였다. 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시각은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 또는 “청각장애인의 문제는 그가 못 듣는데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며 장애에 대해 개별적이고 병리적인 접근이므로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장애·장애인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장애와 관련성이 깊은 학문분야인 사회복지, 특수교육, 재활 등의 영역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협소함을 인정하고 장애를 지극히 개인화된 신체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관점, 즉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라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애를 그저 존재하는 다양함의 일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경수, 2010; 이동석, 2004a; 이수연, 박종영, 박정자, 이은숙, 2013; 조한진, 2011; 허숙민, 박지희, 김문수, 2012). 이러한 패러다임은 사회학 및 다양한 사회과학 방법을 동원하여 장애를 만드는 사회를 연구하는 장애학(Disability Studies)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장애학은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서 장애 경험을 연구하고 있으며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손상을 가진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여부 또한 불공평한 환경에 대해 그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장애학에서는 장애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의료적 접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접근이다(Oliver, 1996). 의료적 접근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기능적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치료적 접근 또는 개인중심 접근이

다. 이런 관점은 장애를 손상(impairment)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운이 나쁘거나 건강이상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혹은 감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므로 장애인을 의존적 위치에 놓이게 하며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린다. 그러나 치료적 접근은 장애를 기능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손상만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산물로써의 장애(disability)를 다룰 수 없다고 비판받아왔다(조한진, 2006). 이런 비판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장애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의료적 접근에서 사회적 접근으로 변화되었으며, 사회적 접근은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원인은 개인적 제한과 한계가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장애인의 욕구가 사회조직 안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의 실패로 본다(Oliver, 1996). 뿐만 아니라 장애를 규정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 등을 탐구하며 문학과 영화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통념(미신), 고정관념, 이미지, 미에 대한 가치관 등에 주목하고 있다(강민희, 정은, 조원일, 박정란, 전지혜, 정희경, 2013). 장애를 둘러싼 사회의 통념과 미디어들은 장애인을 무섭고 더러운 혹은 불쌍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영화 ‘레인맨’ 처럼 장애인을 신비한 또는 어떤 초인적인 존재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런 이미지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Prestly(1998)는 개인과 사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본 장애에 대한 관점을 보완하여 의료적 관점인 개인적 유물론, 장애인의 인식과 감정의 변화에 초점을 둔 개인적 관념론, 사회의 억압과 차별이 장애를 만들어 낸다는 사회적 생성주의론, 그리고 장애를 특별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문화적 결과물로 보는 사회적 구성주의론으로 확장하였다.

한편, 장애학의 관점은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재활학, 의학, 생명윤리학을 넘어 여러 다른 폭넓은 학문적 접근이 존재한다. 또한 Conor(2005)는 비장애인들이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경험이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고방식에 장애학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으로 이선자(2010)는 Prestly(1998)가 제시한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의 틀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대학원생들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개인적 재활과 개입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보도 분석(김윤복, 2003)과 영화 속 이미지 분석 연구(김미정, 2001, 최성이, 2003)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사회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면서 사회에서의 차별과 억압에 의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고 하였다. 또한 최강희 외(2010)의 연구에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동영상 분석한 결과, 의료적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사회적 모델도 드러나고 있음을 밝혔다.

장애,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이미지, 인식 및 태도는 유아교육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왜냐하면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 제일 적어 통합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정혜영, 서보순, 2011) 통합교육의 첫 발걸음이 유아교육기관임을 감안해볼 때 유아교육 분야에서 장애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되어져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분야에서는 주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장애아동에 대해 예비유아교사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최애경, 강영심, 2007),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떠한지(고연숙, 김경숙, 2005; 이금섭, 2006)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예비유아교사들이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장애인 및 통합교육에 관한 이미지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김미정, 최은아, 2007; 오영희, 김현정, 2004)도 시도된 바 있으나 앞선 선행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장애아동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이미지로 범주화하거나 교육적 또는 의료적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주었다. 그리고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아를 건강이상에서 직접적으로 초래한 생물학적 결정론의 산물로 보며,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의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본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예비유아교사들의 장애에 대한 개별적 관점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여전히 물리적 배치 또는 시간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으며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통합교육의 법적·교육적·사회-윤리적 당위성이 강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장애유아가 교사와 또래들로부터 다양한 개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통합까지 실천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를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다룸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을 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미화, 2010).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들이 아주 최근이며 주로 현직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바라봄에 있어 단편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아에 대한 의료적 관점 뿐만 아니라 장애아의 욕구를 사회조직 안에서 충분히 고려하거나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의 실패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는 장애학의 사회적 관점에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한 특정 집단의 지각 및 인식과 같은 사고체계를 알아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은유분석을 들 수 있는데 이연선(2015)은 교육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높이 시사하였다. 은유는 암묵적 지식에 대한 언어적 표현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도구(Lakoff & Johnson, 1980)이며 은유를 통해 인간의 특정 개념에 대한 생각과 경험한 것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체계를 알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를 은유적 사고와 표현을 통해 구체화시키고(Black, 1993), 추상적 개념을 떠올릴 때 자신과 관련된 정서적 경험과 함께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동시에 연결되어 떠오르므로 은유는 사회문화적 현상과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Lakoff, 1993). 최근 교육연구에서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은유분석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기반에는 교사가 가지는 신념과 가치관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근거를 찾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데 기여하고 있다. 유아교육분야에서는 교사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한은미, 이경화, 2014), 다문화교육(이연선, 견주연, 김지연, 2015), 놀이(조경자, 이현숙, 2012)에 대한 은유분석을 통해 각 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신념, 인식들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아나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전무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은유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장애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사회적 맥락 내에서의 사고체계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장애아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에 대한 담론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장애인식개선과 사회정책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유분석을 통해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아에 대한 인식이 장애학의 관

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의 3~4년제 대학 4곳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은 졸업하기 마지막 학년을 중심으로 표집 하였으며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는 3학년 108명, 4학년 105명으로 모두 213명이다. 졸업을 앞둔 3,4학년을 표집한 이유는 1,2학년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교과와 실습 등 장애아에 대한 직, 간접 경험을 통해 그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아에 대한 현재의 인식은 졸업 후 유아교육현장에서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3,4학년에게 설문을 실시한 뒤 회수된 설문은 총 213부였으며 은유가 아닌 표현이나 불성실한 답변의 설문 22부를 제외한 191부의 설문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로 활용된 설문에 응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퍼센트)
성별	남	3	특수교육관련 수강함	135(70.7)
	여	188	교과목수강여부 수강한적 없음	56(29.3)
연령	평균	22.6	장애유아통합기 참관함	72(37.7)
			관경험여부 참관경험 없음	119(62.3)
학년	3학년	94	가족	8(4.2)
			장애아와 관련 친구나 이웃	56(29.3)
	4학년	97	대중매체	124(64.9)
			기타	3(1.6)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2.6세이며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비율은 전체의 70.7%, 장애유아통합기관 경험 여부에 있어서는 참관경험이 없는 경우가 62.3%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며, 장애아와 관련된 경험은 대중매체(64.9%)가 주를 이었다. 기타에 분류된 예비유아교사들의 응답에는 병원이나 장애 관련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한 경험을 나타내었다.

## 2. 연구 도구 : 은유분석

장애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사고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은유적 표현과 그 표현을 사용한 이 유진술문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사고 유형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방법(이연선, 견주연, 김지연, 2014)인 은유분석을 활용하였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은유는 인간의 능동적인 인지작용 중 하나로 개개인의 개념과 신념을 드러내주는 언어적 표현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은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며 (박영순, 2000)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이해체계와 사고체계는 본질적으로 은유적인 특성을 지닌다(이연선, 2015).

또한 은유 목적에 대해 Lakoff와 Johnson(1995)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돕는데 있으며,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서로의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서로의 경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그들에 의해 은유는 세계에 대해 인지한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세계를 만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이유선, 2002). 이러한 은유의 방식은 어떠한 언어를 쓰든 각 문화권에서 개념적 은유의 표현방법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지만 특정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 속에 내재된 함의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김중도, 2004). 즉,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언어능력과는 달리 현재 살고 있는 문화권 속에서 인간의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은유를 연구방법으로서 접근하는 것은 은유가 가지는 경험적 특징으로부터 이후 사회 문화적 반향성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적합함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은유분석은 교사나 학습자가 가지는 신념과, 함의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주므로(이연선, 2015)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아’라는 사회 조작성이자 경험적인 개념에 대한 사고를 연구하는데 있어 은유분석은 타당한 연구방법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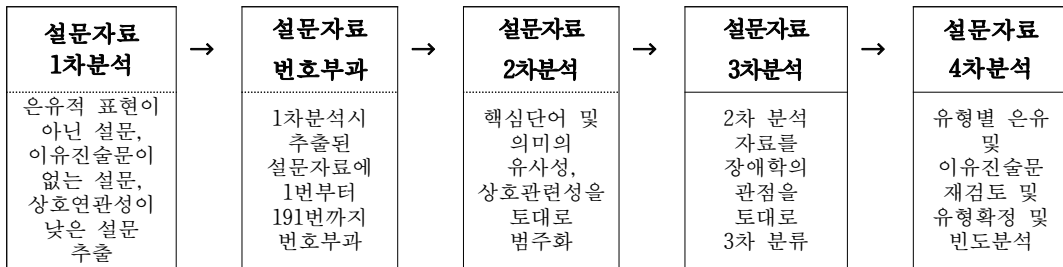
##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은유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 문항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연령, 성별, 학년, 특수교육관련 교과수강여부, 장애유아통합기관 경험여부, 장애아 관련 경험)과 장애아에 대한 은유적 사고 및 그 이유를 기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부산, 경남 지역의 3,4년제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 연구자들은 은유의 예로 “아이는 씨앗이다. 왜냐하면 저마다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를 소개하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은유작성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동의를 함께 은유에 대한 개념이해를 확인한 후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설문을 배부하고 “장애아는 \_\_\_\_\_이다. 왜냐하면 \_\_\_\_\_이기 때문이다.” 의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총 소요된 시간은 대략 15분 ~ 20분 가량이며, 총 회수된 설문지는 213부였다.

#### 4.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설문 후 자료 정리 및 연구 분석까지 2014년 9월 3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총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먼저 주 1회 세미나 형태로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애학 관련 도서(조한진, 강민희, 정은, 조원일, 광정란, 전지혜, 정희경, 2013; Shakespears, 2013) 및 선행연구(강종구, 2013; 이선자, 정운옥, 2010; 이수연 외, 2013; 이지은, 2014)를 통해 낯설게 다가왔던 장애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분석에 앞서 연구자 배경을 소개하면, 연구자 1인은 유아특수교육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4년 이상 통합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연구자 1인은 특수교육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통합교육 및 이를 실시하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진행한 적이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아와 관련된 경험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통합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방향과 논의점을 이끌어 내는데 일치하는 관점이 많았다.

장애아에 대한 은유를 수집한 설문자료는 이연선(2015)에 소개된 Schmitt의 체계적 은유분석 절차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석 절차

첫째, 예비유아교사에게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 자료를 2회 이상 읽어보며 은유적 표현이라 볼 수 없는 응답(예-장애아는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및 은유나 그 이유 서술문이 없는 것(예-장애아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연구주제와 무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은유(예- 장애아는 매트릭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고차원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은유적 표현과 이유 서술문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설문(예- 장애아는 모자이다. 왜냐하면 어떤 모자를 쓰느냐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다)을 연구 자료에서 제외시켰다. 1차 분석 시 연구자들은 각 자료를 나누어 읽어본 뒤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시켰으며 19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둘째, 1차 분석에서 선정된 설문자료는 1번부터 191번까지 각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후 각 유형에 속한 은유적 표현의 빈도와 퍼센트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셋째, 설문자료를 범주화하기 위해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아에 대한 은유와 그 이유진술

문을 유사성 또는 상호관련성을 토대로 범주화하기 위해 핵심단어를 추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예를 들면 아기, 어린아이, 어린 동생, 갓난아기, 어린이, 아이 등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단어를 먼저 같이 분류하였고 이유진술문을 토대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제외시켜 재범주화 자료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범주화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2차 분석 이후부터 최종 유형이 확정될 때까지 특수교육 박사과정 1인, 유아교육과 교수 1인에게 범주화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다. 2차 분석 범주화단계에서 은유와 그 이유진술문 만을 토대로 단순 코딩한 결과 ‘도움의 대상’, ‘신체가 불편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장애를 뛰어넘은 사람’, ‘우리과 같은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순수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잠재력을 가진 사람’, ‘힘오스러운 사람’, ‘숨어 있는 사람’ 등 총 17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넷째, 3차 분석에서는 2차 분석으로 분류된 17개의 범주를 Prestly(1998)의 장애학에 대한 4가지 관점인 개인적 유물론, 개인적 관념론, 사회적 창조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개인적 유물론 입장은 손상의 정도가 장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며 신체적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개인적 관념론은 생물학적 손상과 신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장애를 손상 이후의 심리적인 문제, 상호관계의 문제에 이상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회적 창조주의 입장은 산업화 및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억압과 차별이 장애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으로 장애를 만드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은 장애를 특별한 문화적 맥락에서 발달하는 산물로 여기기 때문에 장애를 개인의 손상의 문제도 아니고, 구조적인 생산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표상에 의해 그 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Prestly(1998)의 장애학에 대한 4가지 관점이 사회적, 정치적인 관점에 가깝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들이 주제를 변경하였다. 즉, 개인적 유물론은 의료-한계 유형으로, 개인적 관념론은 의료-다양성 유형으로 사회적 창조주의는 사회-한계 유형으로,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다양성 유형으로 바꾸었다.

이 단계에서는 한 은유를 표현한 이유진술문에 두 가지 관점이 함께 내포된 경우는 은유적 표현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유진술문에서 강조되는 서술어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연구자간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가진 은유는 미 분류로 분리하여 2차 분석 때부터 연구에 참여한 박사과정 1인과 교수 1인이 함께 검토하여 분류하였다.

다섯째, 4차 분석단계에서 연구자들은 3차에서 분류된 의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 속하는 은유적 표현들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 반복해서 읽어보며 내부자간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유형화를 마친 뒤 범주명을 명명하였다. 이후 각 유형별 포함된 은유적 표현의 빈도를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최종 유형화가 진행되는 분석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 2인과 유아교육전문가로 참여한 유아교육 박사과정 1인, 유아교육과 교수 1인은 은유적 표현과 그 이유진술문을 반복해서 탐독하며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은유적 표현의 해석 단계에서는 삼각 검증법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이 가진 편견이나 주관에 배제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아 대한 은유 유형별 빈도수

예비유아교사가 표현한 장애아에 대한 은유를 분석한 결과 의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다. 먼저 의료적 관점에서는 의료-한계유형과 의료-다양성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한계 유형과 사회-다양성유형으로 나누어 총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별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장애아에 대한 은유적 표현 유형별 빈도

내용유형		은유	N(%)
의료적 관점	의료-한계 유형	아이(9), 어린 동생(2), 노약자, 어린이(2), 휠체어(4), 비극, 슬픈 연극, 눈물, 종합병원, 삐걱대는 톱니바퀴, 못다핀 꽃, 화초, 고장난 인형, 갈대, 얇은 종이, 우주인, 괴물, 로봇, 꼭두각시, 불치병, 화분, 애완동물, 강아지, 거북이, 멸종동물, 아기(16), 갓난아기(4), 우는 아기, 신생아, 일탈, 목발, 무정란, 불행, 목발, 작아진 신발, 과학자, 휴지조각, 유리그릇, 손수건	70(36.7)
	의료-다양성 유형	천재, 사회영웅, 오뚜기(3), 의지의 한국인, 햇님, 진호, 서번트, 천사, 잡초(2), 말아톤, 오체불만족, 외발 자전거, 초능력자, 강철로봇, 슈퍼맨, 나무, 등산, 스티븐호킹, 아이언맨, 높은 산 등반	23(12.0)
사회적 관점	사회-한계 유형	외톨이(4), 왕따(2), 개미, 샌드백, 벌레, 그림자, 새장, 허수아비, 희생양, 외계인, 노란 버스, 이방인, 전용주차장, 불평등, 보이지 않는 장벽, 낙인(2), 불평등 사회, 도시 속 동굴, 빼에로, 멍청이, 유기견(2), 노약자, 아픈 손가락, 눈물(2), 주홍글씨, 가면, 붉은 색, 응달, 그늘, 동물원 동물, 노숙자, 어둠, 돌연변이, 장미, 흑인, 바보, 금붕어, 초보자, 외계인, 거지, 내리막길, 부진아(2), 교수님, 핸디캡, 밤, 등불, 잠수	54(28.3)
	사회-다양성 유형	넝쿨식물, 하얀 스펀지, 새싹(2), 숨겨진 보석, 굵지 않은 복권, 포켓볼, 천재, 씨앗, 모종, 형광팬, 인재, 천사(2), 가면, 마카롱, 무지개, 비빔밥, 변주곡, 오케스트라, 민들레, 백호, 재주꾼, 꽃봉오리, 순수(2), 아름다운 선물, 희망, 사랑, 물음표, 선생님, 교사, 거울(2), 사람, 비타민워터, 햇빛, 친구(2), 이웃(3), 웃음, 예쁜 꽃	44(23.0)

장애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은유적 표현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면 ‘의료-한계 유형’의 빈도가 70(36.7%)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한계 유형(28.3%)’, ‘사회-다양성 유형(23.0%)’, ‘의료-다양성 유형(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아 대한 은유 유형별 특성

예비유아교사들이 장애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장애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도출된 4개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의료적 관점

의료적 관점은 공통적으로 신체적, 지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개인의 문제에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결함이나 손상에 따라 초래되는 이후의 결과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대처와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의료-한계 유형과, 의료-다양성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의료-한계 유형

<표 3> 의료-한계 유형의 은유적 표현

은유
아이, 어린 동생, 노약자, 어린이, 휠체어, 비극, 슬픈 연극, 눈물, 종합병원, 뼈꺼대는 톱니바퀴, 못 다 핀 꽃, 화초, 고장 난 인형, 갈대, 얇은 종이, 우주인, 괴물, 로봇, 꼭두각시, 불치병, 화분, 애완동물, 강아지, 거북이, 멸종동물, 아기, 갓난아기, 우는 아기, 신생아, 일탈, 목발, 무정란, 불행, 목발, 작아진 신발, 과학자, 휴지조각, 유리그릇, 손수건

의료-한계 유형의 경우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결함 또는 비극으로 보며 치유, 돌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으로 장애아에 대한 은유 중 장애를 하나의 신체적 손상이나 결함으로써 보상적 행위가 되는 치료나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여기며, 이에 의존적 특성을 가지거나, 동정, 돌봄의 대상으로 장애아를 바라보는 은유적 표현들을 모아 ‘의료-한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수인 70여개의 은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은유적 표현으로는 ‘휠체어’, ‘부러진 의자’, ‘아이’, ‘멸종동물’, ‘강아지’, ‘신생아’가 있다.

- 휠체어 : 장애를 가진 불편한 다리를 치료 할 수 없어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 부러진 의자 : 4개의 다리로 지탱하는 의자는 발이 하나만 고장이 나도 균형을 잡기 어렵고 불안해보이고 의자로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몸 어딘가가 고장이 나서 항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 아이 :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 불치병 :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장애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병이 더 심각해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하지만 그 병을 낮게 할 수 없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쓰려고 하지만 완치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강아지 :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처럼 평생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신생아 : 막 태어난 아기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옆에서 지켜줘야 하듯, 장애아도 우리가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이다.

각 은유적 표현을 떠올리게 한 이유를 살펴보면 ‘부러진 의자’와 ‘불치병’의 경우 장애를 기능적 손상이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바라보지만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면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는 그 반대의 관점으로 장애는 치료할 수 없으며 기구나 장비 등 보조기구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또한 ‘불치병’을 표현한 이유에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과 장애를 동일시하며, 여러 방법을 강구하지만 장애나 그 병이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아이’, ‘강아지’, ‘신생아’의 경우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이들 모두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일들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미숙한 존재로 장애아를 바로보고 있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유형에 속한 은유적 표현들 중 아이, 어린 동생, 아기, 갓난아기, 신생아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위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열등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의료-다양성 유형

<표 4> 의료-다양성 유형의 은유적 표현

은유
천재, 사회영웅, 오뚝이, 의지의 한국인, 햇님, 진호, 서번트, 천사, 잡초, 말아톤, 오체불만족, 외발자전거, 초능력자, 강철로봇, 슈퍼맨, 나무, 등산, 스티븐 호킹, 아이언맨, 높은 산 등반

본 유형은 의료-한계 유형과 달리 장애를 보는 관점에 있어 그 어떠한 손상도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조건들 중 하나일 뿐이며 동정이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은유적 표현들을 모아 ‘의료-다양성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유형들 중 가장 적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돋보이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본 유형으로 범주화된 대표적 은유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오뚝이 : 넘어뜨리면 금방 쓰러지지만 어느새 또 일어나 있듯이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 말아톤 : 장애가 있지만 힘든 일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마라톤에 참여하는 초원이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 슈퍼맨 :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힘들어 보이지만 자신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악당들과 맞서는 슈퍼맨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 외발 자전거 : 두발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하나 부족하여 스스로 서있기 어렵고, 사람들이 배우기도 어렵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해서 그 만의 방법을 익힌다면 두발자전거 처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모습이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높은 산 등반 : 몸이 불편해서 일반사람은 평평하다고 생각되는 길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험난한 산길이 되겠지만 힘든 걸음을 내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닮아있다.

‘오뎅이’, ‘말아톤’, ‘슈퍼맨’, ‘외발 자전거’, ‘높은 산 등반’ 등의 은유들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개인으로서 장애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금방 쓰러지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부족하여 스스로 서있기 어렵고’, ‘힘든 걸음’ 등으로 표현되는 이유진술문에서는 장애 때문에 초래되는 어려움, 부족함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장애를 불편함, 기능적 미숙함 등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제약들은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표 4>에 나타나는 ‘오체불만족’, ‘아이언 맨’, ‘스티븐 호킹’ 및 ‘슈퍼맨’, ‘말아톤’ 과 같이 장애를 극복한 영화 속 주인공이나 세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웅적 존재에 비유함으로써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극복 가능성에 대해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다. ‘높은 산 등반’ 을 통해서도 비장애인들에게 매우 일반적이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장애로 인해 극복해야하는 환경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점에서 장애를 개인이 가지는 결합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력하고 도전해야 하는 장애아의 삶을 여실히 살펴볼 수 있었다.

## 2)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사회적 시선이나 환경들이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조건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됨으로써 유발되는 이후의 결과에 따라 사회-한계 유형, 사회-다양성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1) 사회-한계 유형

<표 5> 사회-한계 유형의 은유적 표현

은유
외톨이, 왕따, 개미, 샌드백, 벌레, 그림자, 새장, 허수아비, 희생양, 외계인, 노란 버스, 이방인, 전용주차장, 불평등, 보이지 않는 장벽, 낙인, 불평등 사회, 도시 속 동굴, 빼어로, 멍청이, 유기견, 노약자, 아픈 손가락, 눈물, 주홍글씨, 가면, 붉은 색, 응달, 그늘, 동물원 동물, 노숙자, 어둠, 돌연변이, 장미, 흑인, 바보, 금붕어, 초보자, 외계인, 거지, 내리막길, 부진아, 교수님, 핸디캡, 밤, 등불, 잠수

본 유형은 장애를 개인이 가지는 병리적 현상이나 결합이 아닌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귀속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편견과 차별적 대우들로 인해 개인의 삶에 제약을 가지며 결국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에 의한 희생양으로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 은유를 모아 사회-한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가지 유형들 중 2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며 본 유형을 대표하는 은유들은 ‘왕따’, ‘부진아’, ‘흑인’, ‘벌레’, ‘노숙자’ 등이 있다.

- 왕따 : 왕따 당하는 애들 보면 항상 반에서 힘센 애들이 그 애를 일부러 왕따 만드는 일이 많고, 다른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게 되는데, 장애아도 그런 걸 많이 당하기 때문이다.
- 부진아 : 분명 잘하는 것도 있을 건데 공부도 못할 것 같고, 희망반 같은데서 따로 공부하던 아이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 흑인 : 흑인들은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범죄자라고 오해받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 항상 높이 평가 받기 어려운 존재라서 장애아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 벌레 : 장애아/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일단 피하려 들고 어두운 곳에 숨어 살기 때문이다.
- 노숙자 : 길을 가다가 보고 있으면 더러울 것 같고 옆에 오면 싫고 무섭고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은유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장애아가 가지는 능력에 대한 평가 절하와 사회적으로 편견이 가득한 현실에서의 삶이 잘 묻어나고 있다. 장애아는 ‘공부도 못할 것 같고’, ‘높이 평가 받기 어렵고’의 진술에서는 그들이 가진 본래 능력에 비해 무능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묘사되고 있었다. ‘왕따’와 ‘흑인’의 경우는 특히 주류가 되는 집단이 소수 집단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 장애를 대하는 태도가 영향 받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은유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피하려 들고’, ‘무섭고’ 등 사회적으로 각인되어진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한계 유형에 속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이 가지는 개인적 경험에 빚대어 장애아를 연상시키고 있었는데 평소 자신이 인지하고 있던 사회적 소외나, 편견의 대상에 장애아에 투영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그 대상들에게 느끼는 동정심, 돌봄에 대한 인식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장애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치료나 치유가 필요한 손상의 개념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열등하게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유적으로 잘 부각되고 있었다.

## (2) 사회-다양성 유형

사회-다양성 유형은 사회-한계 유형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인 장벽이 만들어낸 결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로 인해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능력 가진 개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진 은유들을 함께 모아

다. 의료-다양성 유형과는 달리 삶의 한계를 초래하는 개인이 가지는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기보다 조금 다른 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다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표 6> 사회-다양성 유형의 은유적 표현

은유
냉콜식물, 하얀 스펀지, 새싹, 숨겨진 보석, 굵지 않은 복권, 포켓볼, 천재, 씨앗, 꽃 모종, 형광펜, 인재, 천사, 가면, 마카롱, 무지개, 비빔밥, 변주곡, 오케스트라, 민들레, 백호, 제주꾼, 꽃봉오리, 순수, 아름다운 선물, 희망, 사랑, 물음표, 선생님, 교사, 거울, 사람, 비타민워터, 햇빛, 친구, 이웃, 웃음, 예쁜 꽃

‘사회-한계 유형’으로 분류된 대표적 은유들은 다음과 같다.

- 새싹 : 어린 새싹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시름을 다 잊게하고 행복하고 순수함을 나타내듯이 언제 피어날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발휘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친구 : 친구는 키가 작은 친구, 눈이 큰 친구, 소심한 친구, 활발한 친구 등 서로 가진 신체적 특성이나 성격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듯이 그냥 다른 매력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초능력자 : 우리와 다른 능력을 심어진 한 사람이며, 그 능력이 발휘되면 보통사람들이 따라 잡기 힘들 정도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 백호 : 흰 털을 가진 호랑이는 조금 다르게 생겨 눈에 띄지만 결국 똑같은 호랑이인 것처럼 장애아도 똑같은 사람이며 다만 한번 눈길이 더 가는 것일 뿐이다.
- 오케스트라 : 오케스트라에는 많은 악기들이 각기 제 소리를 내지만 그 속에 어울림이 있듯 오케스트라 속의 특색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우리와 같이 어울려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거울 : 거울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장애아를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지는 본래의 모습을 순수하게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친구’, ‘백호’, ‘오케스트라’로 표현된 은유들에는 장애를 서로 ‘다름’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키가 작은 친구’, ‘눈이 큰 친구’, ‘흰 털을 가진 호랑이’로 진술된 부분을 눈여겨 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이나 특성으로 인해 눈길이 가지만 친구가 되는데 어떠한 문제로 작용하지 않음을 함께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새싹’이 가지는 순수함과 잠재력, ‘초능력자’가 가지는 초능력을 통해 장애아를 다른 능력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오케스트라’에서는 특색을 가진 하나의 악기에 비유되어 각기 제 소리를 내는 속에서 어울림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열등한 시선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회 내에서 한사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바람이 담긴 은유로 ‘거울’이 대표적이었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장애아에 대한 편견없는 시선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회-다양성 모형에서는 장애를 또 다른 개인의 특성으로 바라보는 의미들이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들이 가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회에서 바라봐지기를 희망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개념적 은유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은유 유형을 분석해 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이 경험적으로 체득한 결과라 볼 수 있는 장애아에 대한 사고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213명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장애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의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인 두 관점으로 크게 나누어졌으며 세부적으로 의료적 관점은 다시 의료-한계 유형과 의료-다양성 유형으로, 사회적 관점은 사회-한계 유형과 사회-다양성 유형으로 각각 2개의 하위 유형을 포함한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한계 유형은 4가지 유형별 빈도에서 36.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의료적 관점 중에서도 의료-한계 유형은 장애를 결손으로 인해 기능적 제한을 야기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들은 신체적 병리의 정도가 감소되거나 제거된 후에도 지속적인 손상을 남긴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손상을 입는 것이 장애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며 개인의 어떤 건강 이상과 장애화 사이에 필연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Reindal(2000)의 의료적 관점과 관련된 문헌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이상과 장애화 사이의 필연적 인과관계는 은유적 표현에서도 드러나는데, 장애아를 ‘휠체어’, ‘아이’, ‘노약자’, ‘부러진 의자’, ‘불치병’, ‘빼겨대는 톱니바퀴’, ‘비극’ 등의 표현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정혜영, 서보순(2011)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유아에 대한 이미지 유형 중 발달가능성 부정형과 유사한 유형으로 장애유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물론 교육의 효과까지도 불신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가진 예비유아교사는 장애유아의 신체적 기능 상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애라는 꼬리표를 쉽게 붙일 위험성이 높으며 손상을 가진 장애유아를 다시 의존적인 위치에 놓게 될 수도 있다(박승희, 2004). 장애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 변화하는 데는 한 두 번의 장애관련 체험이나 장애이해교육으로 부족할 것이지만 이 유형의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유형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유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준다면 서서히 변화될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의 경우 통합교육, 특수교육관련 교과 수강 경험은 70%가 넘으나 장애유아통합교육기관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였으므로 장애유아통합기관 참관이나 실습경험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의료-다양성 유형은 4가지 유형별 빈도에서 12.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 유형은 의료-한계 유형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손상으로 보지만 손상은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는 영웅적 인간상이 부각되어 드러났다. 예비유아교사들의 은유적 표현을 살펴보면 ‘오뎅이’, ‘의지의 한국인’, ‘진호’, ‘서번트’,

‘말아톤’, ‘오체불만족’, ‘스티븐 호킹’ 등으로 대중매체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식과 고정관념에 대해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내용들에 대해 대중들은 진실성에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허숙민 등, 2012). 최애경, 강영심(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예비 유아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미지가 ‘말아톤’, ‘위인전’, ‘다이고로’, ‘오체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드라마나 책,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장애아를 영웅이나 위인과 같이 초인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러한 관점이 장애아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는 대체로 비장애인의 경험을 통해 해석되고 묘사되다보니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을 바라볼 때 비장애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완전한 육체’라는 허상을 그릴 수 있다(조한진, 강민희, 정은, 조원일, 광정란, 전지혜, 정희경, 2013). 따라서 장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눈으로, 그저 존재하는 평범함의 일종으로 장애를 그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때도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그려낸 장애인식 UCC와 같은 미디어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사회-한계 유형은 장애에 대한 관점이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다는 입장이며 과거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방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현대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강종구, 김건희, 2010, 조한진, 2011). 특히 장애학의 관점에서는 사회학적 시각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려는 이해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 응답지에서도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일반인 즉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사회적 편견이 묘사되고 있었다. 장애아가 직면하는 차별적 시선이나 대우들이 그들의 삶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로 작용하게 되며 결국 사회적 희생양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은 은유들이 주를 이루었다. ‘왕따’, ‘부진아’, ‘흑인’, ‘벌레’, ‘노숙자’ 과 같이 우리 사회 내 존재하는 소외의 상징들을 장애아에 투영시켜 묘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애아를 ‘흑인’, ‘왕따’, ‘노숙자’ 에 비유한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소외의 대상, 오해의 대상, 능력에 비해 저평가 받게 되는 대상,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차별과 장애아를 동일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장애학 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태동과정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장애학은 소수자들의 인권운동에 자극을 받아 장애인 인권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Titchkosky, 2000). 결국 장애학과 장애인 인권운동 등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던 소수자들의 인권운동과 닮아있으며 예비유아교사들도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은 장애학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아교육에서는 통합교육과 관련하여서도 생소한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의료-한계 유형이 예비유아교사들의 사고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아교사들이 장애를 병리나 손상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유형에 속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은유에서는 장애아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사고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체로 장애아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장애아를 위한 교육적 접근에 있어서도 장애를 개인이 가지는 질병이나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이나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



회와 그들의 인권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장애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과 장애아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하나로 인식하는 관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장애학에 기반을 둔 유아특수교육이 제안될 수 있다. 이는 장애학이 가지는 사회적 모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강종구, 김건희, 2010, 재인용)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억압, 편견에 따른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 속 법률과 정책에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적 접근(조한진, 2011)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뒷받침해준다. 이에 예비유아교사들이 접하는 특수교육 관련 교과 속에 장애아들이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과 제도적으로 장애아에 대한 차별금지 법이나 기타 규제 등이 심도깊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다양성 유형은 장애아를 이웃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존재, 독특한 개성을 소유한 개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있다. ‘초능력자’, ‘백호’, ‘형광팬’ 와 같이 장애를 결합이나 손상이 아닌 특수한 능력, 눈길을 끄는 특별함으로 바라보는 것도 본 유형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이다. 이 속에는 장애아를 바라보는 ‘다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장애아를 평등한 시선으로 편견없이 바라봐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오케스트라’, ‘변주곡’, ‘비빔밥’ 등에서는 거리낌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새싹’, ‘초능력자’, ‘숨겨진 보석’, ‘굵지 않은 복권’ 등 은유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이거나 막연한 이미지들이 주로 묘사되고 있어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삶의 측면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 유추해보자면 본 유형에 속한 예비유아교사들은 다양성의 관점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 충분히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접해본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초부터 장애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차별금지법이나 물리적 환경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이동석, 2004b). 하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초반의 사회적 생성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가족, 주변 이웃, 대중매체 속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의 삶이 사회적 장벽들에 가로 막혀 있으며 그를 초월한 다양한 삶의 면모를 보기 힘들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방향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는 통합교육의 방법이나 실천에 관한 지식을 전달함에 앞서 장애아의 능력과 다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장애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바이다. 연구에 참여하였던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아만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보다는 일반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유아 통합교육환경에 놓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 통합학급 교사가 가지는 장애아에 대한 태도는 비장애아에게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소현, 박은혜, 2006). 따라서 교사가 되기 전 사회 안에서 차별받는 장애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길러주고, 장애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양성과정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책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나 장애유아통합기관에서의 장애아 교육에 대한 경험보다 인간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장애인들로 구성된 문화동아리 등을 활용한 자원봉사나 몸소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 문헌

- 장민희, 정은, 조원일,곽정란, 전지혜, 정희경 (2013).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서울: 학지사.
- 강종구 (2013). 장애학 관련 외국학술지에 나타난 통합교육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1), 1-20.
- 강종구, 김건희 (2010). 특수교육에 적용된 장애학의 연구 경향 고찰.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1(4), 375-414.
- 고연숙, 김경숙 (2005).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 **유아특수교육연구**, 5(6), 128-147.
- 김미정 (2001). 한국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자아의식과 차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정, 최은아 (2007). 특수교과목 이수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인 이미지분석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2(1), 289-308.
- 김윤복 (2003). 한국 신문의 장애인 관련 보도 분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중도 (2004). **은유의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 박경수 (2010). 장애인의 다중패러다임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의 장애개념 인식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6, 161-182.
- 박승희 (2004). 장애개념화의 진전이 장애인 지원 구축에 지니는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38(4), 27-65.
- 박영순 (2000). **한국어 은유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오영희, 김현정 (2004). 특수교육관련 교과과정이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21, 95-110.
- 윤삼호 (2006). **장애학의 정치**. 대구DPI.
- 이금섭 (2006). 예비유아교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1), 59-82.
- 이동석 (2004a). 장애인의 다중 패러다임과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27-251.
- 이동석 (2004b).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에 따른 한국 장애인 운동의 성격 분석. **재활복지**, 8(1), 34-67.
- 이선자, 정윤옥 (2010). 장애학의 다중패러다임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유형. **주관성 연구**, 20, 165-183.
- 이소현, 박은혜 (2006). **특수학생교육: 통합학급 교사들을 위한 특수교육지침서**. 서울: 학지사.
- 이수연, 박종영, 박정자, 이은숙 (2013).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이해교육의 실태분석과 나아갈 방향.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4(1), 19-35.

- 이연선 (2015). 은유와 은유분석 고찰을 통한 교육연구에서의 은유분석 역할탐구. **유아교육학논집**, 19(1), 253-275.
- 이연선, 견주연, 김지연 (2014).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은유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4), 571-589.
- 이유선 (2004). 은유와 실재. **철학**, 79, 185-209.
- 이지은 (2014). 문화학적 장애학을 위한 시론. **뫼히녀와 현대문학**, 43, 323-343.
- 정혜영, 서보순 (2011).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유아에 대한 이미지 유형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2), 121-149.
- 조경자, 이현숙 (2012). 예비유아교사의 놀이 은유에 나타난 놀이에 대한 인식. **교원교육**, 28(4), 337-358.
- 조한진 (2011).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1-25.
- 조한진, 강민희, 정은, 조원일, 광정란, 전지혜 (2013).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서울: 학지사.
- 최강희, 박세라, 하종아 (2010). UCC동영상에 나타난 장애인 인식 분석. **재활복지**, 14(1), 1-29.
- 최미화 (2010). 장애 이해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 유아교사의 장애 유아 통합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유아특수교육연구**, 10(4), 89-114.
- 최성이 (2003). 영화 오아시스 - 장애인 영원한 주변인으로 남다. **장애와 사회**, 1, 165-176.
- 최애경, 강영심 (2007).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미지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1(3), 27-42.
- 한은미, 이경화 (2014). 개념적 메타포를 통해 본 유아교사의 유아에 대한 신념. **생태유아교육연구**, 13(4), 1-22.
- 허숙민, 박진희, 김문수 (2012). TV 드라마 속 장애인 이미지 분석-장애이론 모델과 미디어 프레임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9(1), 1-22.
- Beminor. (2015). 왼쪽 눈이 의안인 나는. (2015.05.07). <http://beminor.com/news>
- Black, M. (1993). More about metaphor. In A. Onthony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or, D. J. (2005). Studying disability and disability studies: Shifting paradigms of LD-A synthesis of responses to Reid and Valle.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8(2), 159-174.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restly, M. (1998). Construction and Creations: Idealism, materialism, and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and Society*, 13(1), 283-301.
- Reindal, S. M. (2000). Disability, gene therapy, ana eugenics-A challenge to John Harris. *Journal of Medical Ethics*, 20(2), 89-94.
- Shakespears. T. (2013). Disability rights and wrongs, **장애학의 쟁점: 영국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이지수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2006).
- Shuell, T. J. (1990). Teaching and learning as problem solving. *Theory into Practice*, 29, 102-108.
- Titchkosky, T. (2000). Disability studies: The old and the new.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5(2), 197-224.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taphor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disability studies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213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were the students of universities in Busan and Gyeongnam area were selected as target object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 15 to 29, 2015. The collected data were categorized and quantified based on the systematic metaphor analysis. As a result, the metaphor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categorized into 4 types such as medicine-limit type, medicine-diversity type, society-limit type and society-diversity.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required for consideration with regard to the direction of integrated education and for increasing the professional speciality of teachers who perform the integrated education in the training course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 *Key Words* : *disability study, metaphor analysis, disabled chil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논문투고 2015. 06. 15.  
수정원고접수 2015. 07. 14.  
최종게재결정 2015. 07. 25.